

## 케이피에프, 로봇산업의 핵심부품인 정밀감속기 사업진출

- ▶ 국내 최초 정밀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에스비비테크 전격 인수
- ▶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진입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교두보 확보

**<2018-09-17> 케이피에프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정밀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에스비비테크를 전격 인수했다.**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 케이피에프(024880, 대표이사 송무현, 김형노)는 정밀감속기를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한 에스비비테크를 전격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밀감속기는 지난 50여년간 일본의 HDS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로봇산업의 핵심부품이다.

케이피에프는 에스비비테크의 구주인수 및 신주발행을 통해 에스비비테크의 지분 45.78%를 확보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121억원이다.

케이피에프가 인수하는 에스비비테크는 특허 37건, 특허출원 4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라인에 사용되는 특수 부품 제작 및 공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당분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기존 사업 부문 매출이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의 정밀가공 기술이 케이피에프의 자동차 부품 사업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제품 분야로의 진출 등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

에스비비테크는 특히 2015년부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부품인 정밀감속기를 ROBO DRIVE 상표로 양산에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밀감속기는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제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빠르게 동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QYResearch의 자료 및 HDS의 증설계획에 따르면 정밀감속기 산업은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전방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2017년 5,000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2022년에는 1조7천억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로봇, 스마트팩토리 업계 또한 일본 HDS사 감속기 공급이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이러한 시장요구에 부응하여 정밀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에스비비테크는 국내 및 해외 로봇, 스마트팩토리 제작 업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피에프의 김형노 대표이사는 “케이피에프의 양산능력과 자본력이 에스비비테크의 기술력과 결합되면, 전세계 정밀감속기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HDS사와 견줄 수 있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가



능하다. 에스비비테크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 로봇,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케이피에프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